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63. 남은 자손과 예수의 증거

2014. 03. 16.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 말씀 나누지 못한 예수의 증거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여지의 씨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를 규정지은 계시의 말씀의 두 번째 조건이었지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 합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1.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하는데, 돌아간다고 했는데 어디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답: “돌아가서”라는 번역은 잘된 번역 같지 않군요. 헬라어는 “아페르코마이”인데, 떠나다, 가 버리다 등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입으로 물을 토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우니까, 이제 여자를 도운 그 땅으로 가서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이 여자를 핍박한 곳은 역사적 현장으로 말하면 유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싸움 장소를 옮기는 것이지요. 그 장소를 “바다 모래 위에”라고 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바다 모래 위에”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답: 성경은 바다 곧 많은 물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해석했습니다.(계17:15) 그러니까 용, 곧 사단은 온 세계적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미래도 역시 많은 무리를 나타냅니다. 계20:8에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지요. 용, 곧 사단은 이 세상의 대다수의 대중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남았다는 것은 그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지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은 엄청난 대중의 지지를 업고 소수의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소수가 어떻게 그 대단한 다수 대중의 공격을 감당할 것입니까?

답: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거의 언제나 소수로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왕상 18장에 기록된 1대 850명의 대결인데, 곧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입니다.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이 두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

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용은 이 남은 자손이 아니면 싸우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이 남은 자손은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는 남은 자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십계명을 문자와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다는 뜻이지요. 그냥 몸에 지니고만 있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찬송가를 보면 십계명이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성경과 찬송가께 적어놓은 문자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제7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교리와 신조는 첫째 날을 주일이라고 하여 예배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막7:7)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이 아닙니다.

4. 예, 목사님, 지난 시간에 예수의 증거에 대하여 오늘 자세히 살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실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답: 그렇군요. 계시록은 예수의 증거를 대언의 영이라고 해석합니다. 19:10을 읽어보시지요.

[계19:10]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구역에는 예언의 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로 “에스틴 토 프뉴마 테스 프로페테이아스”인데요, 에스틴은 “이다”라는 말이고, 토 프뉴마는 그 영이라는 말이고, 테스 프로페테이아스는 그 예언의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그 영이다”라는 말입니다. 곧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성령의 증거하는 역사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예수의 증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장부터 나타납니다. 사도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를 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이라고 했지요. 성경을 읽어봅시다.

[계1: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계1:9]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감사합니다. 계시록에는 예수의 증거라는 말이 다섯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번과 12:17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곳에 한 번, 그리고 19:10에 두 번, 다시 20:4절에 한 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1:2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하여서는 1:2절을 공부할 때 자세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 당시 아직, 신약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도들의 편지와 복음서를 어떤 칭호로 사용할까 하는데서 예수의 증거라는 말을 사용했

우리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장은 순결한 여자로 표상된 진리 교회가 1260년이라는 대환난기를 거친 후에 주어진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10장을 설명할 때 다시 예언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된 예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하도록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증거를 제시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헬라어의 문법 구조는 예수의 증거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를 뜻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예언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예언의 은사를 주실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용이 수많은 대중의 지지를 배경으로 싸움을 걸 때에 그 은사를 받은 사람 통하여 성령께서 승리하는 증언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성령의 증거를 따를 때에 넉넉히 승리할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5.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록 10장의 사건이 일어날 역사적 시점에 성령의 특별한 은사로 어떤 사람을 선지자적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답: 예,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먹어서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경험, 즉 큰 실망을 경험했을 때 성령께서 그 실망을 이기고 성소에 대한 연구를 철저하게 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무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예언의 은사를 주시겠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다시 예언한다는 말의 뜻이고, 그 예언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예언의 영으로 역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한 종을 통하여 증언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예언된 그 역사적 시점에, 또 예언된 역사적 사건이 성취된 뒤에 한 예언자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이 두 조건, 예언된 역사적 시점과 예언된 사건이 성취된 후에 일어난 예언자가 아니면 계시록 10:11의 다시 예언할 일을 맡은 자가 아니고, 또 그를 통하여 주신 성령의 증거가 아니면 계시록 12장 17절이 말하는 예수의 증거가 아닙니다.

6. 그러면 그 역사적 시점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답: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엘렌 G. 화잇 여사인데, 그는 계시와 영감으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의 쓴 경험 후에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소문제와 때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바른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가 쓴 여러 글들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운 성령의 바른 증언으로 교회에 제시되었습니다. 계시록 10장에 예언된 사건, 곧 펴 놓인 작은 책을 먹었을 때 입에는 꿀 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된 역사적 사건이 1844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직후에 엘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전달했습니다. 그의 봉사를 통하여 실망한 사람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도움을 얻게 되었고, 결과로 오늘날 세계적인 교단으로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앞에서 말한 대로 예언의 증거와 그 역사적 성취와 바로 그 때에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겠다고 한 사건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다른 기독교 교단들이 엘렌을 우리 재림교회의 창시자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밀러가 재림교회의 창시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다 큰 오해에 불과합니다. 밀러는 침례교 목사로 재직하는 중에 별세했습니다. 엘렌은 밀러의 재림운동에 참

여한 한 교인에 불과합니다. 1863년에 재림교단이 결성될 때 밀러와 함께 재림 운동에 가담한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고 결성했는데, 엘렌은 그런 멤버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에 영감의 기별로 지도자들에게 격려와 바른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는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들은 하나같이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하려는 정성어린 내용과 성도들을 성경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는 진지한 권고로 차 있습니다. 편견 없이 그 책을 읽으면 정말 성경적 진리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7. 하나님께서 왜 배에서 쓴 경험을 허락하시고 또 다시 예언하는 직무를 맡기는 예언자를 세우시는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으로 계시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까? 성경만으로 복음의 목적을 넉넉히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답: 예, 아주 중요하고 예리한 질문을 하셨네요. 실상은 그래야 하는데 문제는 복음을 변경하고 다른 복음을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셋째 나팔 때에 살펴본 대로 불타는 햇불 같은 별이 떨어져서 강과 샘물을 쭉이 되게 하였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때와 법을 변경하고 오류를 많이 집어넣은 교리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기독교 신학이 되고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문화와 신학과 전통으로 여과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왜곡되고 오류가 진리인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지요. 성경은 결코 영원한 지옥 불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는데, 교회의 교리는 그렇다고 가르치고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뱀이 한 말을 진리인 것처럼 사람의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들이 마치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진리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모스 8:11~13에 있는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지요.

[암8:11~13]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13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 번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도 오류가 교리가 되어 있고 신학이 되어 있는 그것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아주 흥미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13:27입니다.

[행13:27]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의 말을 외우지만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의 글을 암송합니다. 그런데도 그 뜻을 몰라요. 오늘날도 일요일마다 교회에 모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변개된 신학과 전통에 근거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진정으로 성경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조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친히 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126을 읽어봅시다.

[시119:126]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와 일하실 때니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폐하여졌습니다. 성경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뱀이 한 말이 진리로 둔갑해서 교회에서 설교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정이 다시 예언하는 일을 필요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일을 왕성하게 할 때에 있을 일이지요.

8. 말씀을 들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도록 일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한대로는 10장의 작은 책을 먹은 후에 일어날 사건인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되는 데요, 두 가지 경우로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도록 된 것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는 작은 책을 먹은 후에 배에서 쓰게 된 것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대로 진리에 대한 기근, 즉 적그리스도의 발흥으로 진리가 왜곡되어서 교회가 바른 진리를 따를 수 없게 되었을 때 순수하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답: 예,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진다는 예언을 윌리엄 밀러와 그 동조자들이 잘못 이해한 것을 바로잡아 성소에 대한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그때까지 복음을 도덕론적으로 이해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생명과 창조에 대한 계시를 깨달을 수 없도록 가려버린 것을 성령께서 친히 벗겨내어서 생명과 창조의 복음을 깨닫도록 친히 가르쳐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눈에 수건이 덮여서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거든요. 이제 고후 3:15~18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고후3:15~18]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수건이 덮여 있습니다. 16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수건은 벗겨질 것입니다. 17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겨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계시를 주관하시고 영감하시며 예언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언하도록 감동하시고 계시를 주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강조할 때 성령을 예언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언된 그 사건이 예언된 그 역사적 시기에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배에서 쓰게 된 경험이 있게 되었을 때에 다시 예언하도록 한 종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2300주야에 대한 연대를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깝다고 날짜까지 밝히면서 열심히 증거한 것이 빛나갔을 때 다시 예언하여 그것을 바로잡게 하였고, 아울러 진리를 땅에 던져서 짓밟은 세력이 왜곡시킨 진리를 바로잡아서 사람들이 속이는 자에게 속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게 임하는 시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9. 예수께서는 재림하시는 때와 날자는 아버지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짐작하고 다시 예언하는 것과 재림하실 시기와 관련이 있다고 하시는지요?

답: 예, 감사합니다. 날짜와 시간을 모르지만 징조를 통하여 그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24장을 찾아봅시다.

[마24:32,33]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이 가까운 것을 징조들을 통하여 알지만, 정확한 날과 시간을 모른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일곱 인의 사건과 일곱 나팔의 사건을 공부하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깝다는 징조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예언한 2300주야에 대한 예언도 살폈습니다. 정말 재림이 가깝고 또 우리 시대는 재림을 고대하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기대하는 것보다 재림이 더딜 때에 성경진리의 불이 희미해지고 꺼져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열 처녀 비유입니다. 한 번 읽어봅시다.

[마25:1~13]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3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6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7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8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9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12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이야기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거의 다 한 번쯤은 들어본 내용일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반반입니다. 그들은 밤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다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시119:105) 곧 성경입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속4:1~14 참고) 그들은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넉넉히 불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만일을 위하여 등(燈) 외에 다른 기름을 가득 담은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예상보다 더디 옵니다. 그래서 열 처녀가 모두 졸고 잡니다. 밤중에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온다고 나와서 맞이하라는 외

침입입니다. 이 여자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신랑을 맞아서 신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들러리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깜짝 눈을 떠보니 등에 기름이 거의 다 탔습니다. 심지에 불은 곧 꺼질 듯이 가물거립니다. 신랑은 아직도 신부 집 마당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니다. 아마 동구쯤 왔는지 모릅니다. 신랑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처녀는 교회와 교인들을 표상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 때에 성령께서 성경말씀에 역사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1260년 동안 진리를 왜곡하는 세력에 의하여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를 도외시키고 철학과 전통과 소위 교회의 권위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은 가지고 있어도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깨닫는 것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등불이 꺼져가는 이유이고, 세상에 말씀의 기근이 생긴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름 담긴 그릇이 없으면 등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등불이 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그릇에 담긴 기름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기름을 등에 부을 때 등불은 아주 밝아지고 오시는 신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른 그릇과 거기 담긴 기름이 바로 예수의 증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10. 목사님, 아주 흥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하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하여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다 밝히 이야기 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 기근 시대에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기갈에 시달리지 않게 해 주셔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광중에 맞이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